



국제표준동향

국제표준과 공공정책

제 30차 ISO 총회('07.9.19~21, 스위스 제네바) 기간 중, “국제표준과 공공정책”에 관한 오픈 세션이 개최되었다. 동 오픈세션에는 125개국 대표단과 22개 국제/지역기구 대표단 등 4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국제표준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오픈세션은 정부, 국제기구, 기업, 사회단체 등의 리더로 구성된 두 개의 패널로 진행되었다. 제1차 패널 사회자는 Mr. Paul Hohmen(지속가능전략분야 국제컨설턴트, 네덜란드)였으며, 국제표준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방법이 중점 논의되었다. 제2차 패널 사회자는 Prof. Jonathan Koppell(예일대 경영대 교수)였으며, 국제표준과 공공안전 및 보안정책 간의 연계성이 중점 논의되었다.

글로벌화 된 사회에서 무역, 보건, 보안 혹은 안전과 관련된 공공 정책은 단독적으로 개발·이행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됨에 따라, '07년도 오픈세션 주제가 결정되었다. 점점 높아져가는 표준 활용도는 모범규제관행과 공공 정책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151개 WTO 서명국은, 非 부합화된 규제와 적합성평가 요건을 통해 불필요한 무역에 대한 기술



박 성 현
국제표준협력과 전문위원
02-509-7399
soy_nda@m-ke.go.kr

장벽(TBT)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국제표준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오픈세션에서 공공정책은 안전, 보안, 보건, 사회보호, 환경과 같은 공동 임무사항과 관련된 기술규제에서부터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혁신 및 표준 배포 촉진, 기업경쟁력 및 공공서비스 품질?효율성 증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UN 부사무총장 발표 - UN 새천년개발목적 달성

UN 부사무총장(Mr. Sergei Ordzhonikidze)는 ISO가

UN 새천년 개발목적(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등 UN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계획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은 역량구축, 시장개방, 교역 촉진, 기술혁신 조성에 기여한다. 또한, 표준은 업무 절차에 필요한 수준을 제시하는 한편, 투명성, 신뢰성,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공한다. 기술협정문에서 상세히 제시하듯이, 국제표준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3가지 측면- 경제, 환경, 사회-에서 기여한다.”

UN 副 사무총장은 국제표준은 경제성장 원동력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climate change)도 언급하였는데, 이를 “개발과 보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하면서 심각해지는 문제”라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우리 모두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도구 중 하나이기에, ISO가 환경라벨링, 품질 및 온실가스배출 검증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어서, ISO가 사회적 영향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보건기술, 작업장 안전, 자연재해 후속조치, 소비자 보호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표준을 통해, ISO는 지속가능한 개발 업무 중 사회적 측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 작업은 주목할만하다.”

예일대 경영대 교수 발표- 규제에서의 ISO 표준에 대한 의존도

Jonathan Koppell 교수(예일대 경영대)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공공정책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역할과 準정부 정치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Koppell 교수는 ISO는 비정부 기구이지만, 각 회원국 규제에서의 ISO 표준에 대한 의존도는 정부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제표준은 최소한 매우 자주 공공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보존하기에, 공공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동 오픈세션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안전, 보안, 환경품질은 전형적인 공공 이익이다.”

이어서, Koppell 교수는 표준이 공공정책을 구성하는 방법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 ① 표준은 산업계와 개인회사에 대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은 각종 규제와 법률로 통합되고 있으며, 국제 교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 ② ISO 표준은 강제 매커니즘으로써 경쟁력을 부여함으로써, 민간분야에서 법을 준수하도록 시장 인센티브를 발생시킨다.
- ③ 표준은 공공 조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보다 높은 투명성과 경쟁력을 촉진시킴으로써, 표준은 부패에 대한 장벽으로써의 역할을 하며, 훌륭한 정부가 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④ 표준은 보건, 안전 및 개발과 같은 다양한 정책분야에 있어 국가간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촉진한다.

⑤ 표준은 기술개발을 형성한다. 이는 미약하지만,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효율적인 표준기구는 기술개발을 예상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Koppell 교수는 "이러한 기능의 공공성으로, ISO(와 타 기구) 표준이 '공공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공정책 지원

제1차 패널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3가지 측면(경제 성장, 환경 보존, 사회 평등)과 관련된 공공정책에 대한 국제표준의 기여도에 중점을 두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은 지난 20년 동안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변화, 에너지 효율성, 천연자원 고갈, 개도국의 세계시장 접근, 사회적책임(SR) 등의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동 패널에서는 ISO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범위와 이해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에 있어, 기업은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다. 특히, ISO 표준은 합의가 이루어진(consensus-based) 개발절차로 인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독려하기에, 국제표준은 특히 산업계 분야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 마찬가지로, 국제표준은 생산과 무역을 촉진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개발목적 달성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규제를 활용하여, 그러나 독려와 보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제표준 채택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패널리스트들은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에서 표준에 대한 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훌륭한 공공 정책은, 공공 서비스 효율성 촉진과 모범규제 관행 이행을 목적으로, 국제표준 활용을 요구한다.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조정되는 공공정책과 규제는 목표를 지정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국제표준은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모범관행 조장·명백한 커뮤니케이션 지지·진행절차 및 이행성과 모니터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교역에 대한 민간표준(private standards)(특히, 개도국 중소기업에서 제정한 표준)의 등장과 영향력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ISO는 이러한 관련 단체와 적절히 협력해야 한다. 제1차 패널 진행자는 "훌륭한 표준은 공공의 이익이다. ISO는 표준제공 업무만 이행하는게 아니라, 이 분야에 있어 리더임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국제교역센터(ITC) 센터장- 중소기업(SME) 지원

ITC 센터장(Ms. Patricia Francis)은 개도국 발전을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TC는 표준은 기술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기업사례를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을 촉진하게 한다고 하였다.

"시장 접근에 있어,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이는 그 첫 번째 단계이다. 다음단계는 이러한 표준에 대한 준수를 실제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표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ITC와 ISO가 공동으로 필요한 도구를 개발한 이유이다. 공동 지침서인 ISO 22000(식품안전경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울러, ITC 센터장은 개도국의 국제표준개발 참여 증진과 역량구축을 위해, 국제사회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WTO 부국장 발표 -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목표

WTO 부국장(Mr. Harsha Singh)은 WTO 규정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표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WTO는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사용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표준의 간접적인 이점을 강조하였는데,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는 부합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제조업체는 일관성이 없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표준은 국가간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며, 안정적이면서 평화로운 경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국제 표준은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WTO 정책과 목표를 뒷받침한다.”라고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영인증서서비스원 원장 발표 - 보다 훌륭한 규제

영인증서서비스원장(Lord Lindsay)은 기업경쟁력, 성장 및 채용정도를 증진에 있어서의 국제표준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보다 가벼운 정도(lighter touch)의 규제 혹은 법률에 대한 자발규제로서의 국제표준 활용은 불필요한 규제 혹은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또한, 변화하는 단체문화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consensus-based) 표준은 강제로 부여된 규제보다 더욱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표준화에 대한 이해도와 개발절차 참여도 증진을 통해, 정부는 이득을 받을 수 있다.”

영인증서서비스원장은 “정부에서 표준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공공이익을 전달하고 공무원들의 공공정책 목적 준수에 있어서의 표준가치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경영시스템표준활용과 EU 서비스지침서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표준은 보건, 교육, 보안 등의 입법분야와 지속가능한개발 분야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JISC 부회장 발표 - 민간분야를 위한 융통성과 신용성

JISC 부회장(Mr. Masami Tanaka)은 일본 화학산업계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이 산업계가 국제표준 사용(특히 환경경영 및 안전분야)으로 인해 받은 이점을 제시하였다.

자발표준의 융통성과 합의가 이루어진(consensus-based) 단일화된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산업계는 자발표준을 선호한다. 일본의 경우, 일반국민, 지역정부, 산업계와 같은 각계각층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이 안전 및 환경 분야 자발표준의 성공적인 활용사례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이해당사자들은 일치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신용도와 안전을 취득한 기업을 보증하게 되었다.

오늘날, 일본에서의 ISO 14001:2004(환경경영시스



템) 인증을 받은 기업수가 가장 높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회장-
'소프트 파워'를 위한 노력**

WBCSD 회장(Mr. Bjorn Stigson)은 오늘날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각 기업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는 등 "소프트 파워"를 획득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소프트 파워"의 원동력이 되며, 이는 곧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된다.

ISO 14001:2004 혹은 현재 개발중인 ISO 26000(사회적책임)과 같은 국제표준은 기업들이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획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발표준과 지침서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실제로 신뢰성과 투명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기업활동의 기준이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WBCSD 회장은 규제지는 공공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을 결정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는 이행에 필요한 표준과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 글로벌컴팩트 사무처장 발표- 위기 관리

UN 글로벌컴팩트 사무처장(Mr. George Kell)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ISO 표준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ISO 26000은 윤리 활동에 대한 개방성, 커뮤니케이션, 투명성에 대해 증가되고 있는 요구사항을 해결할 중요한 표준이 될 것이다. 사무처장은 금융시장을 그 사례로 들었는데, 이 경우,

투자, 자산, 연금 업무를 이행하는 단체는 위기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ISO 26000은 이러한 위기관리에 있어 상당한 도움을 제시 할 것이며,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에, UN 글로벌컴팩트는 ISO와 협력약정문을 체결하는 등 동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제2차 패널- 위험에는 국경이 없다

제2차 패널은 안전, 보안 및 보건과 관련된 공공정책에 대한 ISO 표준의 역할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술규제 대신 자발표준이 동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관련 위험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국제표준은 불필요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을 피하면서 적절한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와 사회가 직면한 위험은 넘쳐 흐르는 정보통신기술과 글로벌화 된 무역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공급망을 확장시키며, 산업활동과 신규 기술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위험도 발생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연재해, 국토포안협정체결, 전염병에 대응 할 시, 기술 및 단체표준이 상당히 기여 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인정되었다. 현재, 소비자는 이러한 신규 위험에 대해 보호받길 원하는 동시에, 구매나 일반 소비활동을 통해 환경 혹은 사회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

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2차 패널은 안전, 보안 혹은 보전에 대한 연구개발(R&D) 활동에 국제표준개발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어졌다.

또한, ISO는 규제부합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 단체와 협력하여, 규제 대체안 혹은 지지안으로써 활용될 ISO 국제표준 개발에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술규제에서의 ISO/IEC 표준 활용 및 참조”라는 책자를 새로이 발간함으로써, 규제자들이 ISO/IEC 시스템을 잘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표준개발 시 필수불가결한 ISO/IEC 표준 준수와 시장감시 또한 패널에서 논의되었다. 모범적인 표준준수와 적합성평가 사례에 대한 지침 형태로써의 ISO 기여도는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의장 발표 - 무역에 대한 장애물 회피

UN/ECE 의장(Mr. Marek Belka)은 공공 안전·보안을 비롯한 기타 사회문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물을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공동으로 합의된 안전요건에 근거하고 있는 “공통 규제용어”를 통해 모색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UN/ECE에서 “가능한 한 규제는 표준을 참조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지”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법률 제정자들은 융통성 있는 접근법을 채택하여, 표준이 특정 규제에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BAM(독일연방 재료연구 및 시험소) 기관장 발표 - 신규기술 등장

BAM 기관장(Prof. Manfred Hennecke)은 안전 및 보안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단체의 기여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연구기관은 표준개발절차 기간동안 과학적 신뢰도와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신규 표준화 분야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표준이 혁신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기에, BAM은 독일을 대표하는 ISO 회원기구인 DIN의 작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부합화 TF 팀(GHTF) 의장(Dr. Larry J. Kessler)은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표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규기술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분야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GHTF팀은 ISO와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GHTF팀 의장은 위험 제품 확인시, 시장감시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위험 제품이 제조되기 전에 처음부터 강제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SO/TC 223(사회보안) 의장 발표 - 위기 극복 달성

TC 223 의장이자 스위스 대사(Mr. Krister Kumlim)는 지금까지 사회보안을 다루는 모범 사례나 관행이 없다고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에, TC 223은 국제 합의(international consensus)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작업 목적은 보호, 대응 및 복구, 위기 완화 및 지속적인 증진과 같은 위기 관리 능력 증진을 통해 사회에 대한 위협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작업 결과, TC



223은 ISO/CD PAS 22399(사회보안- 사고대비 및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게 되었다.

국제소비자기구(CI) 의장 발표- **국제사회에서의 소비자 위치 상승**

CI 의장(Mr. Richard Lloyd)은 소비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소비자의 국제표준개발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소비자의 적절한 구매행태에 표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 모두는 어떠한 제품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의 필요성을 반영 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표준은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시장감시를 통해 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표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CI 의장은 표준의 이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하여 작업

중인 ISO 26000 작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사회에 기여하는 표준

“ISO가 개발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근거한 국제표준은 정부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라는 메시지가 ‘07년도 세계표준의 날 주제(표준과 시민: 사회에 기여하는 표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ISO 회장(Mr. Hakan Murby)은 동 세션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논의된 표준의 이점을 전달하는 기회로 세계표준의 날을 활용 할 것을 독려했다.

오픈세션 폐회 시, ISO 회장은 회원국들에게 자국 수준에서 타 정부부처와 기타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ISO는 국제 및 지역 정부간 기구와의 협력을 구축·강화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출 처 | ISO Focus 11월호

|기술표준 2008. 3

